금융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KB부동산 리브온’으로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8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9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14일 오전 3시~6시까지 이체 등 금융거래 중단

카카오뱅크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조회, 이체, 체크카드 결제, ATM 출금 등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말 출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이어가면서 더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 장비 일부를 교체,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의 금융거래 전면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단 업무는 ▲카카오뱅크 앱, 홈페이지 이용 불가 ▲체크카드 국내 및 해외 이용 불가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P2P 외담대API’ 출시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 전용 ‘P2P 외담대API(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용 P2P외담대API는 은행의 특화된 오픈API로 P2P업체와 소상공인 간에 대출업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도 출원해놓은 상태다. /안상미 기자

인터넷銀·삼바·MG손보 ‘뜨거운 감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금융위 국감

케이뱅크 인가특혜 집중 질의
삼바 분식회계감리 등 도마위
‘편법인수’ MG손보 지부장 출석
‘채용비리’ 시중은행장 출석 무산

〈2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 증인·참고인 명단〉

구분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신청위원
증인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낙하산인사 관련 라마다 평창 신탁관리 관련	김진태
증인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	금융권 채용비리의혹 낙하산인사	김진태
증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케이뱅크인가 과정의 특혜의혹과 영업행태	제윤경
증인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페이 문제	김용태
증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	카카오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질의(중금리대출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제윤경
증인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 관련	이태규
증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주식거래시간 연장	김병옥
증인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김병옥
참고인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추혜선
참고인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핀테크 활성화 관련	전해철
참고인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블록체인 관련 현황 질의	전재수
참고인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서민금융 및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이태규

*출석 요구일 10월 11일

금융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MG손해보험의 편법인수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도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반면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도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이번 국감에서 일제히 제외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중금리대출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케이뱅크의 인가특혜 의혹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중금리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지난 8일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한 확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MG손보(전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편법인수 의혹으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MG손보는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ABCP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등 소비자 피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 ABCP 사태과 관련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KTB자산운용은 중국 에너지기업이 보증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판매사는 물론 해당 채권을 평가한 나이스신평에게도 책임을 묻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를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요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 건도 있었지만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16일 수출입은행,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2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상생 카드’ 꺼낸 우리카드, 비정규직 180명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협약 체결
채용과정 거쳐 내년 1월 전환키로
“고용안정은 회사발전에 기여”

우리카드 노사가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카드는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임직원의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일괄 전환 ▲청년 신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정상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카드는 올 4분기 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에 준하는 채용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8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7월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PC사용 가능 시간을 변경하고 휴일 근무에 대비하여 ‘대체휴일’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은 “우리카드도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발맞춰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조직에 대한 로열티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최근 카드사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사 간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왼쪽)과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이 10일 우리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예금보험, 뱅크런 막아 금융안전 기여”

예보 비보호예금 인출위험
보호예금보다 최대 3.35배↑

예금보험이 금융회사의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지난해 구축된 부실저축은행DB를 이용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뱅크런은 부실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를 말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부산 저축은행의 예금인출이 급증했고, 이후 1개월 후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가 된 바 있다.

연구 결과 예금보험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보호예금 인출위험을 낮추고 비보호예금 인출금액을 줄여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은 각각 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 이를 초과한 예금을 말한다.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한도 이내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걸 의미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1200억 규모 유상증자 IMM PE 주요주주로

케이뱅크가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원),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설립 당시 초기자본금에 대한 각 주주사별 보유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전환주는 주금 납입일 10월 30일, 보통주는 주금납입일 12월 21일 이후 증자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증자에는 국내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케이뱅크 주요주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안상미 기자